



하나님과 LGBTQI 커뮤니티에 바치는 캐나다 장로교회의 고해

2022년 6월 6일 채택

2022년 총회에서는 하나님과 LGBTQI 커뮤니티 앞에 바치는 고해를 채택하여 캐나다 장로교회에서 동성애 혐오¹, 트랜스젠더 혐오², 이성애주의³와 위선으로 인해 발생한 피해를 고백하고 교회가 진정으로 개심하고 행동에 변화를 일으키기로 약속하였습니다. 교회 전체가 믿음을 지닌 개인과 공동체로서 이 고해대로 실천하여 피해가 지속되지 않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해의 의미

이 고해는 하나님은 물론, 믿는 자들의 공동체 전체를 앞에 두고 서로에게 하는 고해입니다.

살아가고 서로를 대하는 방식에 대한 하나님의 바람에 반하여 이에 어긋나거나 미치지 못하는 사실이 있었음을 가정하고 시작하는 고해이기도 합니다.

이 고해는 교회에 다음과 같은 행동을 촉구합니다. 피해가 발생했음을 인지하고, 하나님과 피해를 본 이들에게 용서를 구하며 피해를 끼치는 행동을 멈추고, 잘못을 회개하며 바로잡고, 회복과 화해를 향해 믿는 자들의 공동체 내에서 새로운 여정을 시작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LGBTQI 커뮤니티에 바치는 고해

다함께: 기도합시다.

인도자: 우리 중의 성령께서 하신 일에 답하여,
캐나다 장로교회는 하나님 앞에 서서
서로가 함께하는 자리에서
하나님과 LGBTQI 커뮤니티 앞에 죄를 고백하고자 합니다.
교회는 일부를 배제하고 마음을 상하게 하는 처우로
많은 이들에게 상처를 입혔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며,
그간 우리가 피해를 입힌 이들 모두의 용서를 구합니다.

다함께: 우리는 겸허한 마음으로, 새로운 길을 찾고자 이 고해를 바칩니다.

인도자: 창조와 약속의 하나님,
당신께서는 우리를 당신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사람을 따듯하게 맞이하고 돌보는 공동체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듯이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가 되라 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껏 LGBTQI 커뮤니티를 외면하고 제외하여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온전한 생명을 얻지 못하게 방해하였습니다.
우리는 교회의 법정들을
이성애자나 시스젠더가 아닌 이들이
공격당하고, 배척당하며 비하되는 곳으로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명하신 것처럼
서로를 사랑하지 못했으며
하나님과 언약의 관계를 망가뜨렸음을 고백합니다.

다함께: 잘못되고 부당한 행동에 대해서, 용서를 구합니다.

인도자: 교회에서는 LGBTQI 커뮤니티의 인간성을 말살하고 해치는 각종 정책을 제정하고
관습을 채택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교회는 수많은 이들이
자신의 진정한 성 정체성이나 성적 지향성을 받아들여지지 교회의 일부분이든지
양자택일하게 만들었습니다.

다함께: 잘못되고 부당한 행동에 대해서, 용서를 구합니다.

인도자: 교회는 LGBTQI 커뮤니티가 위험하고
폭력적인 집단이라는 해로운 거짓말을 빈번히 계속해 왔습니다.
이로써 씩씩진 오명으로 인해
재능 있는 사람들이 낙심하고 집단에서 배제되어
교회에서 리더 역할을 하지 못하는 환경이 조성되었습니다.
교회의 편견은 LGBTQI 커뮤니티를 향한 혐오와 무시를 키워 이들을
신체적, 영적, 정서적 폭력의 표적으로 만들었습니다.

다함께: 무자비하고 부당한 행동에 대해서, 용서를 구합니다.

인도자: 교회의 사명 중에
하나님께 속한 예배를 드리는 것보다 고귀한 부름은 없습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해 이 세상에 하나님의 통치를 선포하는 힘과 소망을 발견합니다.
분명히 보여줄 힘과 희망을 찾습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사용하는 단어들은 충분히 포용적이지 않아
수많은 사람들과 그들의 가족을 보이지 않는 것처럼 취급합니다.
따라서 예배 자체가
마음을 다치고 소외감을 느끼는 경험이 되고 말았습니다.

다함께: 무자비하고 부당한 행동에 대해서, 교회가 용서를 구합니다.

인도자: 그간 교회는 LGBTQI 커뮤니티가
자신들의 정신적, 신체적, 영적 복지에

해를 입힌 주체로 교회를 지목했을 때
이를 간과하거나 무관심으로 일관해 왔습니다.

다함께: 무자비하고 부당한 행동에 대해서, 용서를 구합니다.

인도자: 정의와 자비의 하나님,
당신께서는 우리에게 우리 중 연약한 자를 사랑하고 돌보라 하셨는데,
우리는 지금껏 젊은 LGBTQI 커뮤니티에
다정하고 힘이 되는 롤모델이 되어주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건강한 목회적 지원을 바라는 그들의 절박한 요청을 듣지 못했습니다.
우리의 행동으로 버림받은 이들이
동성애 혐오, 자기혐오, 우울증,
약물 남용, 자해, 노숙과 자살 등의 미래를 택하게 하기도 했습니다.

다함께: 무자비하고 부당한 행동에 대해서, 용서를 구합니다.

인도자: 우리가 집이라 부르는 이 교회에
아직도 집처럼 사랑받고 안전을 보장받을 곳을
절실하게 바라는 LGBTQI 커뮤니티 구성원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집이라 부르는 이 교회에서
우리는 LGBTQI 커뮤니티를 업신여기고
비하하는 대화와 태도를
직접 목도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것처럼 부당한 현실에 직면해 침묵을 택해,
결과적으로 이들을 억압한 행위에 공모자가 되었습니다.

다함께: 무자비하고 부당한 행동에 대해서, 용서를 구합니다.

인도자: 창조주 하나님,
하나님의 피조물인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이 얼마나 다양한 모습인지 두 눈으로 확인합니다.
교회는 교회에 맡겨진 사명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교회가 보기에 다르다고 여겨지는 이들을 배척하는 것이
보통이라고 생각되는 이데올로기와 내러티브를
받아들이고 말았습니다.

다함께: 무자비하고 부당한 행동에 대해서, 용서를 구합니다.

인도자: 우리의 냉혹하고 부당한 행동으로
상처 받은 여러분에게,
우리가 여러분을 실망시켰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는 교회가 여러분에게 깊은 상처를 주었다는 사실을 인정합니다.

다함께: 겸허하고 슬픈 마음으로 용서를 구합니다.

인도자: 오소서 성령님 오소서.
침묵의 이 시간에 함께 하소서.

(잠시 침묵)

인도자: 정의롭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성령이 함께해 주셔서
목적의식을 갖고, 연민을 가지고
일에 임하며
하나님과 우리 이웃을 사랑한다는
더 큰 이야기를 실현할 새로운 방법을 찾게 하심을 찬양드립니다.
잘못을 은폐하는
자존심과, 진심을 느끼지 못하게 하는
무관심과 변화를 가로막는 두려움을
극복하도록 도와주세요.

다함께: 정의롭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잘못을 바로잡고 회복하고 화해하며 치유하는 이 힘든 과정을
무사히 해내도록 도울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뿐입니다.
하나님의 교회와 서로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노력에
전념하고, 모든 이들의 번성과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기 위해 용기와 소망을
채워 주옵소서.

다함께: 아멘.

1 **Homophobia** is the fear and/or hatred of lesbian or gay individuals, often exhibited by name-calling, bullying, exclusion, prejudice, discrimination, or acts of violence towards anyone who is lesbian or gay.

동성애혐오증은 레즈비언 또는 게이 개인에 대한 두려움 및/또는 증오이며, 종종 욕설, 따돌림, 배제, 편견, 차별 또는 레즈비언 또는 게이인 사람에 대한 폭력 행위로 나타납니다.

2 **Transphobia** is the fear and/or hatred of transgender individuals, often exhibited by name-calling, bullying, exclusion, prejudice, discrimination, or acts of violence towards anyone who is transgender or whose gender expression doesn't conform to traditional gender roles.

트랜스젠더혐오증은 트랜스젠더 개인에 대한 두려움 및/또는 증오로, 종종 욕설, 따돌림, 배제, 편견, 차별 또는 트랜스젠더이거나 성별 표현이 전통적인 성역할에 맞지 않는 사람에 대한 폭력 행위로 나타납니다.

3 **Heterosexism** is the systemic bias which favours heterosexuals and heterosexuality based on the prejudiced belief that heterosexual people are socially and culturally superior to LGBTQI people.

이성애(異性愛)주의 이성애자가 LGBTQI보다 사회적, 문화적으로 우월하다는 편견을 바탕으로 이성애자와 이성애자를 우대하는 제도적 편견입니다.